



“잘 싸웠다. 대한 건어들!” 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974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경기. 1-4로 패한 축구대표팀의 조규성 등 선수들이 경기 종료 후 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비록 이날 경기에서 패하며 원정 8강의 꿈을 접어야 했지만 또다른 희망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관련기사 7면 연합뉴스

미불용지 보상금 급증 예산확보 난관

땅값 올라 6년 전보다 갑절 는 2조5000억원 규모
2024년까지 소송 패소·보상청구 등 929억 선지급
도, 매년 350억 투입시 60년 이후 지급 완료 예상

제주도내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 보상비가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2016년 미불용지 보상규모를 1조2700억원(공시지가)으로 추산했으나 최근 5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실제 보상비는 2조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공

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지칭하는데,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 시행 이전에 보상을 해야 한다.

행정시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신청해도 지급이 안되고 있어 결국 토지주들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보상이 이뤄질 경우 4-7년이 걸리고 있으며, 행정시에서 패소할 경우 건당 400만~600만원의 소송비와 여기에 부당이득금까지 부담하고 있어 행정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6일 1청사 4층 한라홀에서 도로편입 미불용지 미지급용지 전담팀 회의를 개최하고 미불용지 보상금 현실화, 재정 부담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16년 10월 도내 미지급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지급용지는 9만1147필지·1151만8000㎡로 나타났다. 보상금액은 1조2700억원(공시지가)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실제 토지보상 감정가는 2조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제주도는 예측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24년까지 3년 동안 929억원을 확보해 소송패소 토지와 보상금 청구 토지에 대해 보상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357억원을 확보했고 내

년 예산안에 350억원을 편성했다.

이같은 예산규모로는 미불용지 보상 완료에 앞으로 6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920억원을 투입해 미지급용지 1521필지·47만5000㎡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앞으로 매년 350억원을 투자할 경우 향후 60년이 더 흘러야 미불용지 보상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우선 소송 패소 토지와 보상이 청구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이후 신청이 들어오는 토지에 대해서는 차기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불용지 보상이 언제 끝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고대로그 기자 bigroad@ihalla.com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복권 건의도, 대통령비서실·행정안전부·법무부 등에 건의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민권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반대하다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익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한민국 국민통합이 강정마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연말연시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고 말했다.

대정부 건의문 제출(7월 19일)과 도의회 결의문 채택(7월 22일) 이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한 제77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도 드러냈다.

제주도는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0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했다. 2019년 3·1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1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졌다. 이태로그 기자

알림 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안내 및 필승전략 설명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8일 치러집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선거는 선관위에서 관리합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마다 물밑에서 선거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을 뽑는 선거인만큼 지역경제와 조합원에게 중요한 선거이지만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과도하게 제한돼 '깜깜이 선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도 32개 조합에서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서류 등 준비사항, 선거운동방법, 각종 제한·금지사항 등 후보자가 알아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조합장 당선 필승전략'이라는 소중한 정보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 일시: 2022년 12월21일(수) 오후 2시
- 장소: 한라일보사 회의실

제1부: 위탁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강사: 김도균(VLS선거미디어컨설팅 이사)
▶ 위탁선거법 요점정리
▶ 참고판례 응용 중심 해설

제2부: '조합장 당선 필승전략'
강사: 유광혁(VLS선거미디어컨설팅 총괄본부장)
▶ 유권자는 누구에게 표를 주는가!: 이익을 주는 사람과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 눈과 가슴의 기억은 결국 '뇌'에 새겨질 뿐이다:
평판과 이미지, TEXT<IMAGE<ANIMATION
▶ 요상한 위탁 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외우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재차 확인해라.
▶ 현조합장을 이기는 방법: 승리하는 도전자는 전략과 지략을 쥐고 있다.
▶ 압도적으로 재당선 되는 방법: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더 더 겸손해라. 그리고 실수하지 말아라.
▶ 이미지는 카툰으로 보강하고, 평판은 언론으로 대응해라.
▶ 지금이 가장 선거하기 좋은 시기이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자!
▶ 후보자 가치와 철학은 태도로 나타난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언제나 온다!

한라일보

제주 코로나19 신규 547
잠정집계 6일 누적 35만1343
<17시 기준>

하루 건강한 서귀포시 행복한 시민
삼시세끼 삼삼하게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음주문화개선 캠페인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

이젠, 알코올 Stop! 뒤.집.잔!

모두의 행복이 시작되려면 알코올 멈춤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술잔을 뒤집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건강한 서귀포!

무기력에서
#활기시작

불면증에서
#꿀잠시작

우울증에서
#미소시작

알코올, 멈추면 # 시작

“알코올 멈춤으로 시작되는 약속”

- 술보다 술자리 분위기가 좋다면 문화회식해요!
- 원샷보다는 뒤집잔을 실천해요!
- 폭탄주 마시다가 폭탄으로 변해요!
- 공공장소는 음주보다는 음악이 어울려요!
- 술보다는 물을 권하는 센스있는 선배가 멋져요!

알코올 멈추면 행복이 넘쳐요!

Jeju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